

견관절 전방 불안정성의 관절경적 수술 후 운동 분율 및 기능의 회복

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, School of medicine Catholic University of Daegu, Daegu, Korea

Chang-Hyuk Choi M.D. · Koing-Woo Kwun, M.D. · Shin-Kun Kim, M.D.
Chang-Min Park, M.D. · Ho-Jin Jang, M.D.

목 적

견관절 불안정성의 관절경하 Bankart 병변 복원술 후 관절와상완관절과 견갑흉곽관절의 운동 분율 및 기능 평가를 연속적으로 비교하여 견관절 불안정성의 재활 치료에서 운동분율의 회복과 기능의 회복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.

대상 및 방법

2003년 1월에서 2005년 12월까지 견관절 불안정성에 대한 관절경하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53예 중 관절운동분율 측정과 기능회복의 관찰을 위한 밀접한 추시 관찰이 가능하였던 47예를 대상으로 하였다. 평균 나이는 28.5세(범위 17세~47세)였으며 우세팔이 30예 였다. 평균 이환기간은 3년 1개월 이었으며 평균 추시 기간은 2년 1개월 이었다(범위 1년~3년 10개월). 추시 관찰 중 평가는 단순 방사선사진을 통한 관절와상완관절과 견갑흉곽관절의 운동 분율 및 Rowe's Bankart grading scale 및 ASES function scale을 이용하였다.

결 과

술 후 2개월 추시 결과 상, 90° 거상시 환측의 운동분율은 0.98이었으며 정상측은 1.72였다. 최대 거상시 환측은 평균 119°의 거상을 보였으며 운동분율은 0.93 이었으며 정상측은 161°의 거상을 보였으며 운동분율은 1.53이었다. Rowe's score는 78점 이었으며 ASES function score는 22점 이었다. 6개월 추시 결과 상 90° 거상에서 1.42의 운동분율을 보였으며 최대 거상 134°에서 운동분율은 1.3이었다. Rowe's score는 90점 이었으며 ASES function score는 27점 이었다. Rowe's score와 ASES function score는 술 후 2개월과 비교하여 6개월에 상당한 호전을 보였고($p < 0.05$) 1년 추시 결과와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($p > 0.05$).

결 론

술 후 6개월에 기능회복을 기대할 수 있으나, 운동분율은 최대거상에서 회복을 보이나 90° 거상에서는 정상측과 차이를 보이며 술 후 1년에는 최대거상 및 90° 거상 모두에서 운동분율의 회복을 기대할 수가 있다. 따라서 견관절 기능의 회복과 운동분율의 회복은 시기의 차이가 있으므로 재활 운동시 재수상의 방지와 근력의 균형있는 회복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.

색인 단어: 견관절, 전방불안정성, 관절경하 복원술, 운동분율